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교육재정 GNP 5% 확보하라

교육 자원 마련 촉구 시위

교육개혁안이 자원마련을 둘러 싸고 부처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후, 이에 분노한 교육단체들은 5월25일, 과천 재정경제원 앞에서 GNP 대비 5% 확보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는 97년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를 GNP대비 5%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여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는데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재정경제원의 발표가 있자 본회 회원들을 비

롯,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회원들은 재정경제원 청사앞에서 연대시위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보는 교육개혁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임을 지적하고,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는 지방재정, 전입금, 지방자치수익

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기부금 등을 교육예산에 포함시키는 숫자놀이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재정의 투자지원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꿔 방위비

등을 삭감내지 동결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후, 이에 대한 요구서를 재경원에 전달했다.

제 1회 참교육 단체상 수상

지난 5월 28일 1시, 전교조 결성 6주년을 맞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는 전교조교사, 학부모, 시민, 학생 등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참석교사들은 교사대회에서 어느 때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요즘, 우리의 교육현장은 전교조결성 당시인 6년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밀실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개

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사대회에서는 제 1회 참교육상시상식이 있었는데, 본회가 그동안 참교육을 지향하며 학부모운동을 개척한 활동을 인정받아 참교육 단체상을 수상했다.

교사선언 참가자 탄압 중지 성명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5월 29일 교사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만일 탄압행위가 계속될 경우, 시민, 학부모, 교육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서울지역 초·중등교사 100명(공동대표 윤한탁, 정해숙, 이의협)이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교육

개혁을 위한 서울 교사 1백인 선언'을 발표한 후 서울시 교육청이 11일 '긴급교감단회의'를 소집해 선언 참가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서 받을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경위서를 받거나 직접 참가경위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는 지난 5월 25일 과천 재정경제원 앞에서 정부의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과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주요 기 사	3면	지역사회 위해 뛰는 사람들
	4면	교육개혁안 주요내용
	5면	교육개혁안에 대한 성명서
	7면	두밀분교 학부모가 보내는 편지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



값 4,200원

손순익 창작 동화집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동문학가 중의 한 사람인 손순익의 창작 동화집입니다. 개구리 점박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운전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를 비롯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꽃씨와 봄』 등 여기에 실린 12편의 동화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연의 품 속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설

학교 교육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아온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대학입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동시에 사교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비의 경감,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학교공동체'의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제공 등 정부가 이상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교육개혁안을 자세히 보면, 이상적 교육개혁안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역대정권 나름대로 교육개혁안을 마련하고 대학입시 제도를 수없이 바꿔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결국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한 것은 이를 실행할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 동시에 개혁안들이 학교현장 및 우리 사회 현실을 무시한 교육이상을 나열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개혁안도 교육예산의 배정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원의 줄다리기와 이견타협이 보여주듯, 이들 방안의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책이 결여되어 있어 자칫 용두사미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구체적 실천*의지를 담은 방안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육개혁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의 가장 현실적 관심사인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다. 콩나물고집에서 교사가 학급당 50여명의 학생에서, 과목당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학생개인의 인성과 자질, 개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상당히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갖는 현행내신제 아래에서도 내신비리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종합생활기록부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사에게 간에 벌어질 촌지문제는 앞으로 이 제도의 계속적 실행 여부를 극히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해도 그 제도가 현실 속에 뿌리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행을 위한 선행조건, 즉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한 30명선으로 줄여 교사의 학생 개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 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 종합생활기록부 기록을 둘러싼 촌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앨 교육계의 엄정한 사정작업 등이 먼저 갖춰진 이후에 새로운 개혁안이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종착점으로 지적되어온 교육재정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되고 앞으로 교육개혁안이 현장에서 추진되는데 가장 커다란 원동력으로 가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한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지향점의 건강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교육재정확보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기 선거용이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혁안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운동을 힘차게 벌여가야할 할 책임이 온 국민과 학부모들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두밀분교 패소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학생 17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패교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5월 16일 서울 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패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두밀분교 패교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진행돼왔던 법정 공방은 일단락 매듭을 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패교조치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외적인 문제이고 학교 통폐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률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통합조치가 헌법

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진흥대상 학교의 존립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채 조례를 우선 적용한 것은 법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밀리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통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학교 급식관련 뇌물수수 잡음

울산 시내 대부분의 국민학교가 빵, 우유를 특정업체로부터 제공받으면서 일 정액의 사례비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대리점측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한 해 약 2억원가량으로 학급운영 경비나 교사들의 연수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변칙적인 기부금 조성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 국민학교 교장들의 급식시설비 착복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뇌물수수행위로 교장이 바뀔 때 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는 지난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급식시설비 착복 관련자들의 중.징계와 국가의 학교급식 실시의 책임, 반강제적인 찬조금 징수 중지, 학부모의 급식비, 급식시설 운영비 등의 감시를 위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다. 대만이 도시락 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정도의 뇌물을 받은 교장들에게 최고 7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학교관계자나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학부모 만평

이수자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은

- ◎ 교육의 한 주체로서 바로 서고자 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 ◎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커나갈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장섭니다.
- ◎ 선생님께 돈봉투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가집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번지 당일빌딩 301호
☎: 675-9068, 634-6508 FAX: 634-4359

지역 사회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임경란회원 <마창지회>

교복물려 입기 운동의 선두주자

푸르름을 더해가는 무학산 아랫자락, 서원곡의 오른쪽 동네에는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운동본부'의 간판을 내건 아담한 사무실이 하나 있다. 그곳에 가면 웃음이 보기좋은 임경란씨를 만날 수 있다.

임경란씨는 학부모회 일을 하기 전에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해 왔다. 기독교청년협의회(EYC)나 두레아가동산(탁아방)의 원감 등을 지냈고 낙동강에 폐놀이 방류되어 대책위가 세워졌을 때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딸 둘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지역의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누다가 89년 3월 학부모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경란씨는 학부모회의 초창기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사람들 중의 하나다.

창립당시는 교육문제가 시급하고 사람이 필요한 때였으므로 어느 부문의 일보다도 책임감을 느꼈다고 한다. 90년대 초, 지회장을 맡으면서 결방살이나 학부모회 사무실도 마련하여 계획성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었다.

마창지회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역사기

행, 어린이 날 행사,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였고 소모임활동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친목도 도모했는데 임경란씨는 자신이 속한 '학부모교육(돌리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시끄럽도록 자랑했다.

요즘 임경란씨는 전보다 훨씬 더 바빠져 한마디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아이들이 3년동안 입어 작아져 못입게 된 교복을 수거해온 후 사무실에서 동.하복을 정리하고 손질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불필요해진 교복이 필요한 가정에서 요긴하게 쓰인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요즘같이 돈이면 모든게 해결되는 물질만능 사회속에서 그래도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조금 아끼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일거라고 생각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갑작스레 변한 시민운동에 대한 외면이 학부모회의 조직을 넓히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조직력과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창지회가 전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곳이 된 것은 서로서로 챙겨주는 정 때문이라 한다.

임경란씨는 "참교육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 삶 자체가 '나'에서 '우리'로 변해가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중학생이 되도록 공부 잘하라는 질책 한번 하지 않았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해 주는 딸 아이와 항상 깊은 이해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임경란씨의 얼굴이 더없이 맑다.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세상! 더불어 함께 만들어야 할 좋은 세상! 그래서 임경란씨는 마산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가 빨리 간다.

<김숙연 마창지회>



이재천회원 <전주지회>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위해 동분서주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지회에는 학부모회를 몇 번 나오다 만 사람들이 두 고두고 입에 올리게 되는 사람이 두엇 있다.

자신은 학부모회의 뿌리 역할만 하겠노라 하면서 결코 나서는 일 없이 언니처럼 회원들을 감싸주는 이은옥씨가 그 하나이고, 또 한 사람은 이재천 전 지회장이다.

이재천 회장의 다른 어떠한 면보다 주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줄망줄망한 아이 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혀 힘드는 내색 없이 학부모회 일을 해낸다는 점이다. 그런 그의 모습은 보통의 주부들에게 상당히 새롭고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아이구, 나는 하나 데리고도 아무 일도 못하고 찢찢매는데... 하는 말들을 펴이나 한다.

이재천씨의 활동의 원동력은 사실 그 셋 되는 아이들과 남편으로부터 나온다.

교육학자인 남편은 이재천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로, 학부모 교육운동에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학부모회 자문위원의 역할까지 맡고 있으며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 모니터를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이론이나 정책 등에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밤 늦게까지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재천씨 자신도 교사 출신으로 자녀 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전라북도 종합 청소년상담실이 개설되면서 상담활동을 한 경험은 그것이 주로 성문제, 이성문제, 가정 문제였던만큼 청소년들의 현실과 성장을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재천 씨는 전주 시내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큰 소망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재천씨으로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받곤 하지만, 그녀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멋진 여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나 어린이 숲속 학교등의 준비위원장, 교장 등을 맡아 기획을 주도하는 과정에서는 참가한 여러 단체의 대표들로부터 "저렇게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소리를 꼭 들곤 한다.

이재천씨는 자신이 학부모 교육운동을 어찌어찌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한다. 다만 이 땅의 어려운 아이들, 그들 부모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말로 정의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교육여건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수진 전주지회>



박육남회원 <인천지부>

학교 교육환경 지키는 파수꾼

89년 참교육 학부모회가 창립되고 학교에서의 학부모 권리찾기 운동과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환경 지키기에 가장 활발하고 기동력있는 회원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면 인천지부에서는 박육남씨를 뽑을 수 있다.

91년 학교 체육진흥회에서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여 맞서 싸운 경력으로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부터가 특이하다.

현재 박육남씨는 신현북국민학교 육성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으로서는 학교현장과 분리되지 않고 참교육의 실천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회원으로 박육남씨가 그동안 학교에서 활동한 일들을 인천 학부모회의 본보기로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93년 신현북국민학교 담장의 장미덩쿨이 지지분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모두 베어버리려 한 일이 있었다.

요즘 새로 짓는 학교를 담장은 계절마다 꽃들로 가득차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담장의 관리는 제쳐두고 덩쿨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안이한 발상이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되었다.

또한 94년 학교 운동장 잔디 스탠드도 나무와 잔디를 모두 없애고 시멘트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교육구청과 시교육청을 방문하여 항의, 공사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 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은 지원된 바 없으며 공사에 대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어 결국 공사를 무산시켰다.

학교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의 권리행사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학교장의 권리행사는 교사들조차 막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학교 앞 학생들이 오고가는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위험을 주고 있고, 인천시와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학교 앞은 교통신호등이 없어 저학년은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심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박육남씨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 앞 교통신호등을 달아줄 것을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건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현재 학교 앞 신호등은 언덕으로 인해 앞뒤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었던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육남씨는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주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재정적인 후원자이면서도 실상 자신의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또 박육남씨는 육성회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있으면 지출할 수 있는 육성회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일을 벌였다.

학기 초 육성회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교사와 학부모간의 간담회,

운동장 수도꼭지 갯수 증설, 한글 미해독자에 대한 육성회의 지원, 교통정리 인원과 실험기자재의 지원-을 서면 통보하여 학교의 결정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에서의 답변은 "육성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소집될 수 있으며 자체내 의사결정권이 없음과 학교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교가 삼위일체 되어 각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존중될 때만이 우리의 교육현장이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스스로 나서야 하고,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항상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왜 학교일에 간섭하느냐는 인식은 빨리 없어져야만 합니다."라며 박육남씨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몇 년간을 학교현장에서 일하면서 학부모 역할에 대한 회의가 생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후손들이 이를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으로 계속 될 것을 약속하였다.

<박인옥 기자>

◆ 5·31 교육 개혁안

원칙에는 찬성, 시행절차 마련에 많은 준비 필요

대입제도

▲국공립대=97학년도부터 현행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고, 고교 종합생활기록부가 필수 전형자료로 사용된다.

각 대학은 종합생활기록부 이외에 수능시험, 논술, 면접, 실기 성적을 선택 전형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이들 전형자료의 활용방법(가중치 부여, 반영비율 등)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은 97학년도까지 현행 내신 반영비율인 4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98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사립대=종합생활기록부와 수능·논술·실기·면접시험 등이 전형자료로 선택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활용방법도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공통사항=모든 대학은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해 학생을 연중 어느때나 모집할 수 있다.

대학들이 일정기간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시일자 추첨제 또는 면접날짜 예약제 등으로 특정일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98학년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 기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99학년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만 사용해야 한다.

각 대학이 선택 전형자료로 삼을 수 있는 수능시험은 문·항수 확대 등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논술도 현행 국어 작문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출제된다.

대학 다양화 특성화

▲대학 모형의 다양화 특성화=각 지역 특수성에 알맞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여러 분야를 전공하거나 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공필수 학점을 총 이수학점의 4분의 1~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한다.

▲대학설립의 자율화=대학의 설립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시설·설비, 교원 및 적정 재정규모 등 학교 설립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없는 별도의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정원 자율화=97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의대 및 약대 등 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초·중고 입학제도

▲고등학교=일반계 고교는 96학년도부터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국민학교=만 5세 어린이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학교의 수용범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운영 자율화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설치=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학교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동문대표·교육전문가 등으로

한 초빙조건에 따라 후보자를 공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구성하는 '학교장 추천위원회'는 응모자 가운데 적임자 2명(우선순위 명기)을 선정해 임명권자에게 임용제청한다. 초빙된 교장에게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사초빙제 시범실시=학교장 초빙제에 따라 임명된 학교장은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지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컴퓨터·영어 등 정보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열린교육 기반 구축

▲열린교육체제 기반구축=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고 일정 학점을 얻을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를 도입한다.

대학의 교육시설·설비, 정보·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일반에 개방하고 현장경험자의 입학기회를 확대해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초·중등학교는 방과후 학교시설 설비를 개방해 '지역사회문화센터' 구실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의 편입학을 용이하게 하고 대학과간 벽을 낮춰 전 공인정학점을 총이수학점의 4분의1~6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 고등학교(인문 실업계와 특수목적고)간의 전학을 허용한다.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 설립=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기술교육이 정보공학적으로 연계돼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를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해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재정 확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방안등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수립해 오는 9월까지 확정하여 96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

국·공립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등은 정부 부담이 아니므로 5% 교육재정 개념에서 제외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중학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입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

국·공립대 97학년도 본고사 폐지 자립형 고교 학생 선발 등록금 자율 중학생·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국민학교 만5세 능력따라 취학가능

학정원의 1.5배수를 뽑은 뒤 추첨에 의해 최종선발하도록 하고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한다.

특수목적고의 현행 학교별 필기시험은 97학년도부터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 및 실기 시험으로 전형하며, 종합생활부의 특정과목 등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 96학년도부터 중학교의 학군내 희망학교를 복수신청받아 추첨 배정한다.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을 의결하며 △기타 학교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권장하되 그 기능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국한하도록 한다.

▲학교장 초빙제 시범실시=일부학교에 한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 교육청은 학교에서 요청

다. ▲교육과정=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개선 입학제도

학 교	현 행	개 혁 안	실시시기
대 학	내신+수능+대학별고사	국·공립:종합생활기록부(필수) 수능·논술·면접·실기(선택)	97학년도
		사립:대학자율화	97학년도
고 교	평준화지역 일반계고교: 연합고사 뒤 추첨·배정	선복수지원·후추첨	96학년도
		자립형 사립고:종합생활기록부(+면접, 실기) 기준 1.5배수 선발뒤 추첨	98학년도 이후
	특수목적고:학교별 필기시험	종합생활기록부(+면접, 실기)	97학년도
중학교	추첨·배정	희망고 복수신청뒤 추첨배정	96학년도

◆ 교육 개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우리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파행성을 통감하며 기대해 왔던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열린 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의 기반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국민의 사교육비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의 도입 등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안은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면,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고 주입식교육으로 인한 획일적·권위주의적 인간들의 양산을 지양하면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은 단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시하고 있을 뿐, 실행을 뒷받침할 설득력있는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지방자치제를 앞둔 대국민선전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가 교육개혁안을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점과 본회가 이견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역대정권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교육개혁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창의적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교육개혁안에서 학부모들의 중요관심사인 종합생활기록부의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학생 개인의 모든 면을 두루 파악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콩나물고실의 해소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종합생활기록부는 국·영·수 과목 위주의 대학본고사 시행으로 인한 과외비 폭증과 학생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친 교사의 평가가 가장 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입시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과는 교육환경이 다른 우리 현실에 이를 무조건 도입하게 된다면, 시행과정에서 숱한 부작용을 빚게 되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둘째, 종합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기록의 담당자인 교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 내신제 아래에서도 간간히 언론을 장식했던 내신비리 문제가 교육계에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합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부모를 끊임없이 손지우속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입시지도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정기적 상납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합생활기록부는 학부모의 재력이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아 많은 학부모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손지우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손지관행을 없애기 위해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사정작업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대학이 입시사정에서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의 소질과 품성을 고려한 종합성적기록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상적으로 정착된다면 오늘의 파행적인 과열과외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교육개혁안 발표이후 일류대학의 입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종합생활기록부보다는 논술 및 수능시험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면,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되어 학생들은 여전히 과목별 입시부담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우며, 이를 둘러싼 입시학원시장도 계속 번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은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한편으로 고등학교의 과열과외현상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면서도, 선지원·후추첨 및 일부사립고교의 입시선발권 부여와 등록금 차등화정책으로 사실상 고교평준화제도의 전면 해제를 유발해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지금보다도 더 입시위주 교육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성적이 좋아야만 품성도 좋게 기록되고 일류고 합격 보장률이 높아질 종합생활기록부의 성적관리를 위해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보다도 심한 과외열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평준화해제안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모든 특수목적고가 입시학원화한 것처럼 사립귀족학교 역시 설립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입시학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학교안에서 다양한 특별활동의 기회 및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교과제 및 과목에 따른 수준별 반편성을 도입하여 평준화제도가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엘리트 양성교육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귀족사립학교를 만듦으로써 정부는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교육기회의 평등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중학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마당에 고등학교 역시 조만간 중학교와 더불어 의무교육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적인 의무교육확대시안을 마련하기보다 결국은 일류고로 귀착될 사립학교를 양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특수한 영재를 선발, 양성할 수 있는 공립학교를 만들고 이들 학교가 현행 특수목적고의 경우처럼 입시학원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교육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출발부터 공수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를 주고 있다. 최근 GNP 대비 교육재정비율로 교육부와 재경원의 줄다리기와 이견에서 보듯이 앞으로 교육재정의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98년까지 GNP 대비 5%가 확보된다해도 이상적 교육개혁안이 제대로 정착·실행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는 모든 교육개혁안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곱째, 이번 교육개혁안은 작업과정에서 공개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전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교육주체라 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운영 및 교육문제에의 참여통로가 민주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단체로서 본회는 교육부가 연초에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육성회 및 어머니회가 지니는 한계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던 교육재정의 담당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운영위원회안은 구성인원의 선출절차와 구성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현행 육성회나 어머니회 등의 관행에 따라 교장과 교사의 협의하에 재력있고 자녀성적이 좋은 학부모를 그 구성인원으로 위촉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본회가 계속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재력과는 무관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대표 역시 교무회의가 의결기구화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개혁안은 교사 및 학부모, 학생 대표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단지 자문만하는 극히 제한적 권한을 가지며, 반면에 학교재정과 관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지역사회기부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시여부와 비용의 결정 등 학교재정과 기부금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인사에게 부족한 학교재정을 조달해오는 지금까지의 역할을 더욱 합법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본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무회의와 학생회를 통해 선출된

교사 및 학생대표와 더불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전반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민주적 선출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위해 여타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여덟째, 국민의 교육참여를 보장할 지방교육자치제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및 학제개편에 관한 사항을 하반기 과제로 미룸으로써 정부가 이런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개악조치를 취하거나, 적당히 호지부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어온 사립학교법의 개정 및 학제개편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를 거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본회의 주장은 정부의 교육개혁안의 방향이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결여되었거나, 실행단계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조성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육개혁안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때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3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육개혁

- ☞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하기 전에 예산의 편성에 신경 써야 한다. 비록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에 있지만 국방비에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 그 비용을 줄여 대학 및 중·고교의 등록금을 줄이고 연구비 및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 ☞ 대학입시에 관계된 교육개혁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꿈을 키우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특별활동은 없어진 지 오래고 과학 실습이라곤 3년 내내 단 한번도 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보충수업때문에 하루 9교시의 수업을 하는 것들은 보다 작은 문제에 속한다.
- ☞ 고등학생은 미래에 들어가기 위해 암기식 그림을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그들은 교수의 눈에 맞추려 하고, 그렇다고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들은 또 미술 평론가의 눈에 맞추어야 한다.
- ☞ 고3도 인간이다.
- ☞ 책가방을 가볍게... (성장 저하 및 정신적 압박감)
- ☞ 시험 끝나고 아이들과 반창고를 소집하면 정말 갈 데가 없다. 노래방 같은 업소를 다닌다면 파가운 시선으로 보는 어른들이 많다.
- ☞ 더운 여름에 어느 누구나 더위에 지쳐 정신이 해이해지고, 몸이 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냉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을 잡아 둔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 ☞ 자발적으로 1년하는 공부보다 수동적으로 3년하는 공부보다 훨씬 그 양과 깊이 면에서 엄청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월 그날에 망월동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온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5월의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자연은 그 순리를 거역하는 법이 없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늘 우리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듯 싶습니다.

예년의 오월을 잠시 생각해보면 화창한 봄 햇살을 벗삼아 시골벽적 요란스럽게 김밥을 싸고 찌개거리를 준비하고 잔뜩 멋에 부풀은 모습으로 들과 산으로 자연을 만끽하려 가곤 했지요. 그러나 1995년에 찾아온 나의 5월은 예년의 행복에 겨운 아직 철 모르는 소녀의 5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푸를 줄만 알았던 5월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심장에 분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광주시민항쟁 15주년을 맞이한 올해, 30대를 준비하는 나이에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들던 혁명의 도시 광주, 느릿한 발걸음으로 묘역에 첫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절망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수많은 열사를 뵈어야 했습니다. 망월동은 15년 전 5월을 말하려는 듯 황량함을 간직한 채 나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는 사진들과 그 앞에 산 자의 죄스러움으로 서 있어야 했던 저는 마냥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이, 몰매맞아 죽은 이, 저의 머릿속에 문득 스쳐가는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꽃잎처럼/ 금

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입안 가득 새어나온 그 노랫말을 웅얼거리며 광주 금남로 거리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금남로 행사장은 망월동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열기로 넘실댔습니다. 5월 영령리 한을 달래는 듯한 풍물가락과 "5월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인파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그쳤습니다. 2,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은 이땅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평이한 삶을 살고자하는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윤색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열에 들뜬 나의 심장은 '고민하는 30대'를 과제로 남겨주었습니다.

5월 한달 내내 저는 그동안 지나쳐 온 저의 삶을 반성하며 보내야했습니다. 나의 설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댓가를 치른 셈입니다. 그 동안의 초조함을 재우기 위해 잠자리에서도 운전중에도 저의 신호를 대기하며 두손을 모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른 새벽을 먼저 깨우는 사람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유배달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태양을 맞이하는 감격으로 앞선 이들의 뜻이 부활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중심을 바로 설 수 있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연순(전주시 동완산동)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엄마! 우리 내일은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기로요"

몇해 동안의 경험담인지 딸아이는 미리 선수를 친다. 큰 아이와 4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일년에 하루 한시간, 딸아이 반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하는 것이 올해로 세번째가 되는가 보다. 아니 작년엔 작은 녀석 반에서도 한시간 했으니 네번째인가?

좌우지간 여러번 했던 경험이 있어 올해도 큰 아이 선생님의 요청을 받고 선뜻 일일교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할까? 4학년 때 '동화와 놀이' 중심의 수업이었고, 5학년 때 '성교육', 6학년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선 시기라 성교육이 괜찮을텐데... 올해엔 양호 선생님께서 남녀 따로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니 이번엔 환경문제를 이야기 해 봐야지. '엄마도 선생님'이 어디 있더라? 웬지, 여기있군. '내가 먹은 음식 얼마나 해로운가?' 식품공해 문제로구나. 올해 모둠수업으로 이끌어 봐야지. 담임선생님께 미리 도움을 청해야겠네.'

"선생님,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포장지를 종류별로 5장씩 모아오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책 겉상은 모둠별로 앞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지 8장과 매직, '내가 조사한 식품'란과 식품첨가물의 종류, 환경노래가 인쇄된 복사물 50장, 수학여행때 부를 수 있는 노래 몇 곡을 편집한 복사물 따로.

준비물을 챙겨두고 학교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사뭇 가볍다. 잠깐 교무실에 들러 인사를 마치고 교실로 올라간다.

'어? 웬일이지?'

담임선생님 혼자서 교실을 지키고 계신다.

"선생님, 저 왔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음악실에 갔어요. 음악시간이거든요."

모둠별로 모아놓은 책 겉상 탓인지 교실이 유난히 웅성해 보인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준비해 간 복사물을 한장씩 미리 책상위에 올려놓고 아이들을 기다린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돌아오고, 난 제각각 무리지어 노는 아이들 틈으로 슬쩍 끼어들어 벽트기를 시도한다.

드디어 시작 종이 울린다. "내 이름은 양민숙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이내 각자 준비해 온 포장지를 살펴보고 식품이름, 유효기간, 첨가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느라 무척 분주하다.

"나누어 준 전지에 모둠별로 좋아하는 식품을 세가지만 뽑아서 조사한 사항을 쓰도록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틀리나요?"

'무슨 질문이 이렇게도 많담?'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아이들, 통제된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다양한 자기 표현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답답한 우리의 교육현실과 함께 새삼 아프게 다가온다.

결국 시간이 없어 모둠별 발표는 뒤로 미룬 채, 건강한 식품을 가려먹을 줄 아는 지혜와 실천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어 '전고구마와 햄버거'라는 환경동화 한편 들려주고, '조개와 파수꾼'이라는 환경노래에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며 수업을 마무리 했다.

"애들아, 선생님 수업보다 더 재미있었니?"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담임 선생님 말씀에 "네~" 힘차게 대답하는 개구쟁이 녀석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따스하게 마음을 적신다.

양민숙(이리시 신동)

어거지로 가는 무서운 학교

"엄마, 저 오늘 학교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걸을 수 있을 정도면 괜찮는데 뭘 그러냐. 너 껴병하는 거지?"

괜히 걱정이 앞선다. 애가 이러다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한 주일이 끝날 무렵엔 여지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다.

입학한 지 겨우 두 달 남짓한데.

학교가 재미가 없다느니, 토요일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부터 한참을 실랑이를 벌려야 겨우 마지못해 불쌍한 엄마 소원 하나 들어주는 양, 집을 나선다.

'그래, 재미도 없겠지. 맨날 떠든다고 벌 받고, 친구하고 장난쳤다고 벌 받고, 준비물 안 챙겨온 친구 벌 받는 것 보고 있어야 하니 그럴만도 하지.'

이런 날은 나도 보내기 싫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매양 이렇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나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속수무책인 나 자신이 답답하다.

며칠 전의 일이다. 우리 아이반의 어떤 아이가 급식하는 우유를 학교에서 먹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한다. 처음엔 머리를 때렸는데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대니까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도 울면서 우유를 먹지 않자 급기야 선생님 손바닥으로 볼을 때렸

다.

그날 저녁 아이의 일기글을 읽어 보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목:혼난 000
 마지막 시간에 00이가 우유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선생님이 너무 아프게 히초리로도 때리고 손으로도 얼굴을 때렸다.
 나는 마음이 슬펐다. 학생들을 때리는 건 나쁜 것이다.
 맞으 해야 한다. 선생님한테 맞히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했다.
 나는 00이가 너무 복쌌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또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난처한 질문을 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아이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선생님이 무서워서 라고 했다. 물론 선생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오명숙(경기도 김포)



☞ 학부모가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두밀분교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정아, 은영아, 광호, 혜리, 동은이 그리고 모든 두밀분교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이루어 지지 못하게 해서 말이다.

법원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은이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 학교를 찾기위해 마을 어른들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지. 우정이는 두밀분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 기다리던 두밀리 아이들이 돌아올수 없게 되었으니 두밀분교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냐고 했지. 이렇게 착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찾아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거듭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대법원에 가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신보다 먼저 마을 어른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걱정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밀리를 살사는 농촌으로 만들고 너희들에게 좋은 교육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벌써 모두 "발령"이라는 것을 받아 더 크고 변화한 도시지역으로 떠나 갔어도 우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도 두밀분교를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란 다.

그리고 우리 관결에서는 졌지만 이긴거란다. 비록 학교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지난 1년

간의 싸움을 통해 너희들을 바르게 키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두밀리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비록 마을회관에서 선생님 대신 엄마들과 모여앉아 지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너희들은

고 있는 이 부끄러운 세상이란 다. 집에서 부모들이 시키는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대로만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밀리 아이들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잘못을 따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너희들의 엄마 아빠와 선생님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척 하거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두밀리 아이들아.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모든 어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과한다. 그런 어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렴. 너희같은 시골 아이들의 학교를 문 닫고 도시의 콩나물 교실로 몰아내려는 어른들이나, 급식비를

떼어먹고 있는 어른들을 용서해오. 너희들의 초라한 교실과 달리 번듯하게 새로 지은 상색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방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인정을 가진 두밀리 아이들, 너희들은 우리들의 꿈이란다.

—두밀분교 학부모들이—

이 편지는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두밀리 주민을 대표해서 학부모 장호순씨가 보내온 것입니다.



다른 한국아이들은 아무도 받지 못하는 "참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식한 시골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던 교육청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곧 오리라 우리는 믿는다.

지난 1년동안 우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많은 애를 썼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달달 외우는데 익숙한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살

◇ 6·27 지자제 선거

이렇게 참여합시다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가 학부모 운동에 주는 의의는 매우 크다. 고교입시부활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내고, 적극적인 선거활동으로 교육시민운동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의회 진출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해 바른 관점에 서서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켜 낼 수도 있다.

선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동안의 선거운동은 경험이 짧고 공정선거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공정선거 감시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교육적인 요구, 정책중심의 선거전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지자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대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의 교육관련단체와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대변한다. 고교입시부활저지 서명운동, 방과후 아동보호 및 학교급식시설설치 지원예산 등 지역주민들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후보초청 간담회를 마련하여 후보의 인물됨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육적 요구와 대안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한다. 후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여론조사 분석과 홍보작업을 할 수 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후보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후보가 정말 실력있고 바른 의

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후보를 뽑으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막상 의원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지역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지, 궁금해하지도 않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람직한 후보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이제까지의 지연, 혈연, 학연에 따라 투표하던 악습을 과감히 버린다.

둘째, 과거의 화려한 정치경력보다 자원봉사자로서 기본 정신과 태도가 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선출의 판단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선자와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교육적 요구가 의회정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인 참관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만이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움직이는 도서관

버스에 책을 싣고 달린다

도서관이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들에게 손쉽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움직이는 도서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움직이는 도서관은 45인승 대형 버스에 교양 및 문학도서, 잡지, 아동도서 등 1,500여권의 책을 싣고 4월부터 10월까지 춘향제, 강릉 단오제, 여름해변축제, 한민족체육대회, 설악제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지를 찾아 일반인들이 차내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며 독서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상담도 한다. 이러한 움직이는 도서관은 자칫 들뜨고 흥청거리기 쉬운 축제 분위기 속에 책을 통한 문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는 92년 3월부터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 50여 곳에 '움직이는 대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움직이는 대출도서관이란 아파트 단지, 군부대, 고아원, 직업훈련원, 일반 가정 등 도서관의 손길을 절실히 원하는 곳을 도서관 버스가 찾아가

200권의 책으로 문고를 설치해주는 것이다. 설치 후 1~2개월 간격으로 계속 200권씩의 책을 교체 지원해 준다. 문고마다의 특성과 이용자 연령층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도서 선정 보급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문고는 주부나 어린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체나 개인(10인 이상 회원 확보해야 가능)이 문고 설치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신청하면 된다. 분관은 도서지원만 하며 설치된

문고의 운영과 관리는 이용자의 몫이다. 문고의 관리업무가 힘겨워 어려움을 겪거나 없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움직이는 대출 도서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담당자 정대훈씨는 "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 인력, 자원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현재 버스 1대에 2명의 인원으로 하루 3군데 문고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600권정도의 도서가 교체되는 셈이죠. 문고의 수가 늘고 지원 도서량도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인원, 예산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밝혔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주부나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움직이는 도서관은 질적, 양적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서 하나의 돌파구 구실을 하는 셈이다.

규모가 크고 최신 시설을 갖춘 훌륭한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들 가까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소규모의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이상 중요하다는 생각을 모든 도서관인들은 하고 있다.

움직이는 도서관(행사장 순회) 문의는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 535-4651

움직이는 대출도서관(문고설치) 문의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557-7721

(송주비 기자)

학부모, 자녀 위한 6월 행사 안내

월례회

서울지부

(회원교육)
교육개혁 발표안 검토 및 토론
·일시: 6월 8일 10:30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참교육의 역사와 학부모 운동
(강사: 김완자 참교육 학부모회 전국 회장)
·일시: 6월 29일 10:00
·장소: 삼성출판사 세미나실

◆ 관악동 작성초지회

신입회원환영 다과모임
·일시: 6월 9일 10:00
·장소: 방배동 청소년학회 세미나실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 비디오 감상과 토론
·일시: 6월 15일 10:00
·장소: 방배동 청소년학회 세미나실
·문화소모임 '인생' 관람
·일시: 6월 19일 10:50
·장소: 힐탑시네마 매표소
가족과 함께 관악산 등반
·일시: 6월 25일 10:00
·장소: 서울대 정문
·준비물: 도시락, 음료수

◆ 강서남부지회

자녀교육 이대로 좋은가?
- 조상의 슬기 속에서 (강사: 박동춘)
·일시: 6월 22일 10:30~12:00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634-6508
조기 걷기 대회
·일시: 6월 18일 7:00
·장소: 우장산 강서구민회관 원두막 앞

◆ 중서부지회

지방자치제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일시: 6월 19일 10:00
·내용: 1)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2) 지방자치시대 교육은 어떻게 바뀌나
3) 5.31 교육개혁안에 관한 해설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동북부지회

(연속교육강좌)
창의력 개발 어떻게 할까
(강사: 문정화 창의력 개발 연구 소장)
·일시: 6월 13일 10:00
·장소: 노원구민회관 지하강의실
학부모의 학교참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강사: 김완자 참교육 학부모회 전국 회장)

·일시: 6월 20일 10:00
·장소: 노원구민회관 지하강의실
·문의: 634-6508

대구지부

6월 PET교육
·일시: 6월 14일, 28일 10:00
·장소: 우방APT 최정숙씨 대
·문의: (053) 781-3911
중학교 학부모 모임
·일시: 6월 21일 10:00
·문의: (053) 781-3911

마창지회

회원 만남의 날
·일시: 6월 21일 2:00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문의: (0551) 48-6242

인천지부

인천시민연대 교육공청회
·일시: 6월 5일 6:30
·장소: 카톨릭 회관
·문의: (032) 464-3169
10대 여성정책 과제 공약화를 위한 거리홍보
·일시: 6월 10일 3:00~5:00
·장소: 동인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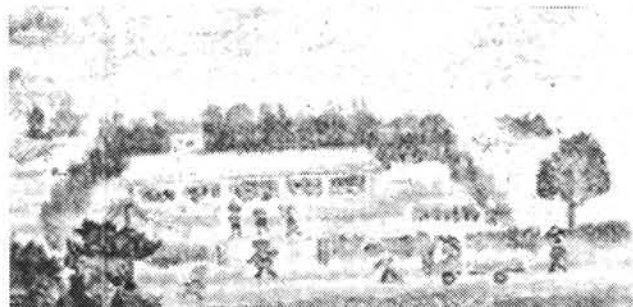
울산지회

제 12회 어린이 역사기행
·시간: 6월 6일 8:00~6:00
·장소: 대왕암, 감은사지, 분황사, 황룡사지, 계림, 석빙고, 침성대, 제2석굴암, 석굴암
·대상: 국민학교 4~6학년

교육 현실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황폐한 흙바람이 날리는 텅빈 교정에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메아리로 남고 유년의 추억이 깃든 작은 학교, 국민학교의 절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립니다.
작은 학교의 어린 웃음과 눈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작: '95 서울영상집단
문의: (02) 765-7611
FAX) 3672-4970

교육계 일지

5월2일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제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교육예산과 별도로 마련된 가용재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

5월9일 강원도교육청, 교원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까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교장이 추천하면 임명하는 교장인사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단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으로 교장인사 추천범위, 추천 인원 1~3명으로 제한.

전남도교육청, 2천년까지 도내 256개 초 중 고교 폐교방침 발표.

5월10일 교육부, 내신 산출일을 12월15일로 하고 고교졸업 후 5년 지난 수험생에게 내신등급 재부여하는 내용의 96학년도 대입내신 시행지침 발표.

현직교사 1백명, 올바른 교

육개혁을 위한 현직교사 1백인 선언 발표. 교육개혁에 대한 현직교사 참여 확대 및 복수교원단체 합법화 등 촉구.

5월12일 김숙희 장관 국방대학원 6.25전쟁 및 월남파병 관련발언 파문으로 전격 해임.

5월15일 신임 교육부장관에 박영식 전 연세대 총장 임명.

5월16일 서울 고법 특별1부, 두밀분교 폐교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

5월17일 서울시 교육청, 98년까지 초중고 24개교 신설해 국교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는 내용의 학생수용계획 발표.

5월19일 서울시의회, 20평 이상 시설 갖춘 학원에 일반 교과목 강습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대, 96학년도 입시 본고사 내년 1월 12, 13일에 치르기로 확정 발표.

내가 찾은 보물



글쓴이: 남수현 (참전국·6)
펴낸 곳: 도서출판 다섯수레

"내가 찾은 보물"은 문화부, 문화방송,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독서 새물결운동 제1회 독서대상을 수상한 남수현양의 글모음이다.

이 책은 '사랑해요, 엄마', '자란다는 것', '친구야, 미안!', '치자, 어서 꽃피우렴', '안단테 칸타빌레', '첫 영성

체'의 일곱가지 주제로 묶여져 있다.

책을 읽고 난 뒤의 독후감,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애정과 뛰어난 감성,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 자라면서 느끼는 친구와 나, 사회와 나와의 관계,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 기도하는 아이의 깨끗하고 순박한 마음씨가 투명한 거울처럼 보인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80권은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자신 있게 권하는 책

산하어린이 ·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도개비 박사 김중대 선생님이 들려 주는 토종 도개비 이야기. 물 달린 일본 도개비 '오니'가 우리 도개비로 둔갑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토종 도개비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알려 주는 도개비 이야기.
김중대 글/신혜원 그림/값 4,000원

▶ 생황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자들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 35 남이다 큰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 36 민요기행 신경림
-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짚쑤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 ▶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 62 끈질기게 물고 들어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64 악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성
-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영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성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68 열두구 국악이야기

-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운정
- ▶ 인문학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윤동주 정지규
- 49 신채호 김서정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하느님의 눈을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사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말꼬마이 이상권
- 20 하루나라 허루왕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성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 23 커다란 종신 장수 아저씨 유재용·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최초리와 혼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7 아기 장수 조호성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30 심마를 아이들 신승영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려서는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다고 깔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콩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뽕쟁이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 65 파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9 느릅골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5 개비 개비 참도개비 김중대
- 76 흰둥이와 검은이 이오덕·신봉철

77 백두산 산삼과 매산이 이야기 동태

- 78 천지와 돌바늘 이야기 동태
-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원 외
- 80 오얏꽃을 낳은 편지 권선자 외
-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운백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TAX 392-7641 FAX 313-2582